

3P94
3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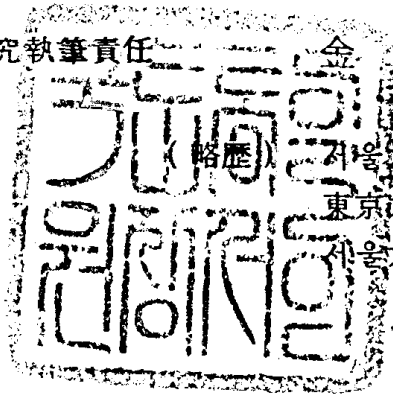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分斷國調查研究

北韓의 民族概念研究

研究執筆責任

金 允 植



(略歴)

지정대 大学院 國文科

東京大에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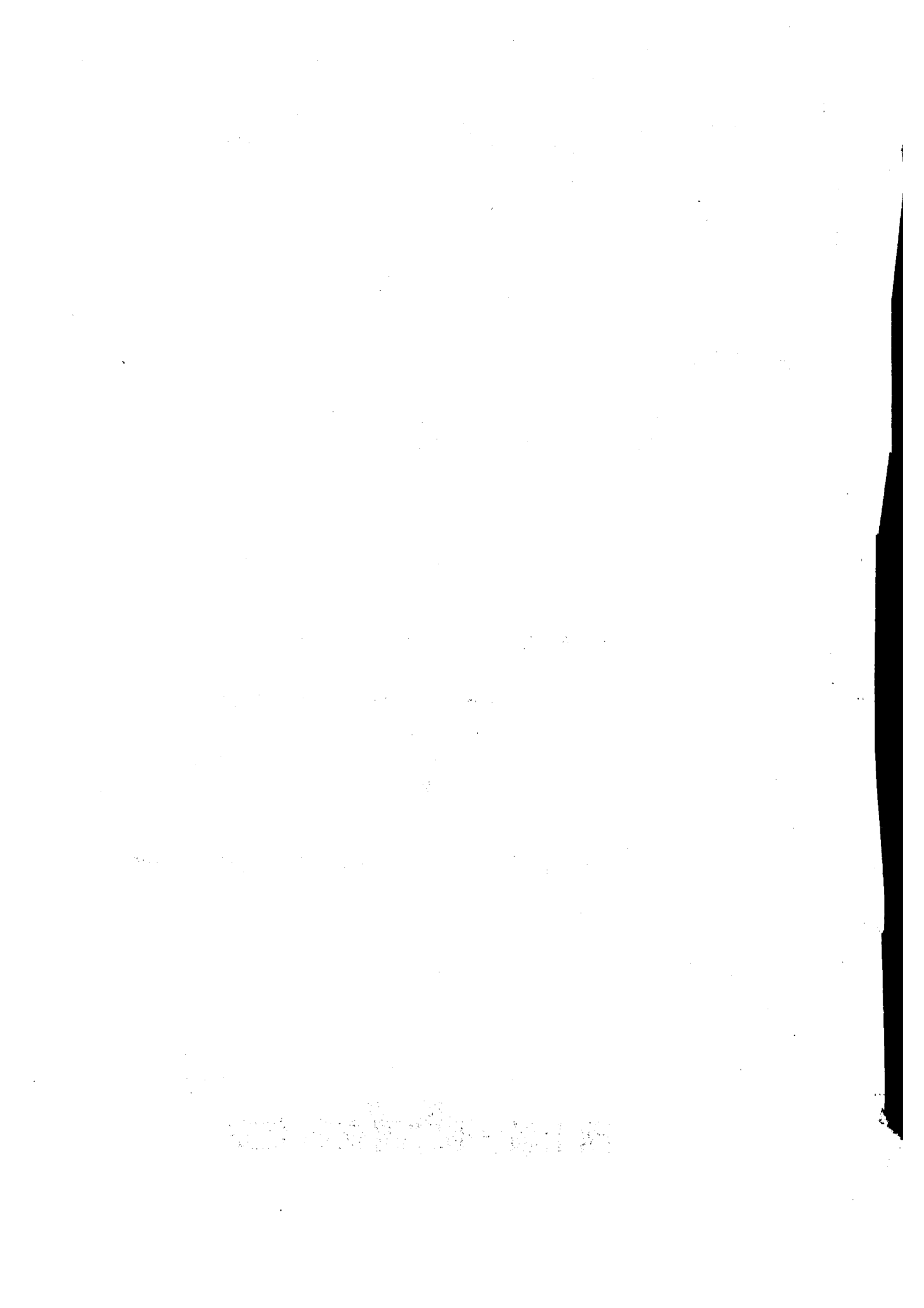
서울대人文大 國文科教授

2000

刊行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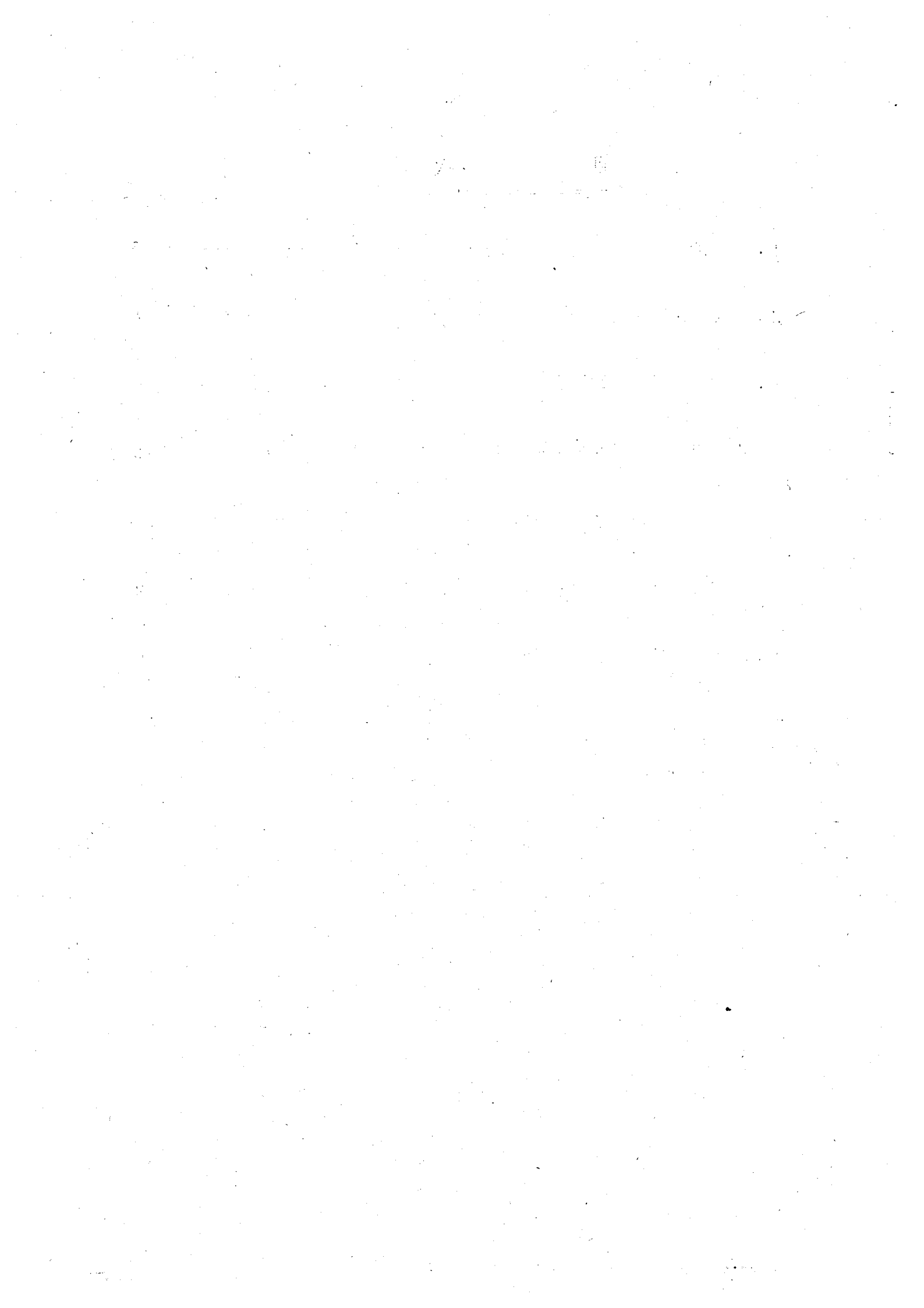
張 榮 敏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I. 序 論	3
II. 北韓의 民族概念	6
III. 民族的 伝統의 問題	23
(1) [조선철학사상사]에 대하여	23
(2) 전통사상과 변증법	29
(3) 父概念의 意味	32
IV. 結 論	38
<註>	42



北 韓 의 民 族 觀

- 主体思想과 관련하여 -

I. 序 論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 이것은 全資本主義世界의 두개의 커다란 제급진영에 対応되며, 民族問題에 있어서의 두개의 정책(世界觀)을 드러내는 두개의 非和解的(敵對的)인 슬로건」이라는 레닌의 규정이라 공산권에서는 民族主義라는 用語는 原則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民族主義는 부르조아 계급만의 것이며 이 계급적 기초에서만 論議될 성질의 것이다. 즉 對內的으로는 그것은 전인민의 이익을 자기계급의 이익에 종속시키고 자기계급이 민족이익의 보호자인 듯이 기만하는 도구이며 對外的으로는 자기민족(부르조아 계급만의)과 他民族의 이익을 대립시켜 他民族을 압박 착취하는 제국주의로 된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民族觀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相反된 것으로 主張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民族에 대한 견해와 민족문제 처리하는 기본적 原則은 그 나라의 人民大衆의 기본적 이익에서 출발됨과 동시에 전 인류의 공동의 기본적 이익에서 출발된다는 것이다(2) 즉〈他民族을 압박하는 民族은 自由로울 수 없다〉는 맑스의 고전적 견해가 표시하듯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떤 특정민족

이 他民族을 抑壓하는 어떠한 형태도 반대하며 자유로이 연합하며 자유로운 분리독립이라는 구체적인 길을 통해 마침내 세계적인 大同盟에 이른다는 것이 기본적 原則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原則論이 宗主國의 처지에서 본 理論임은 불을 것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原則的인 강령이나 기준이 宗主國을 제외한 나라의 구체적인 역사전개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만 존재한다. 그 구체적인 역사전개에서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民族概念일 것이다. 흔히 세계의 공산국가는 다음 세 유형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러시아의 공산혁명, 둘째는 中共, 유고슬라비아, 베트남 등 무력투쟁에 의한 혁명, 셋째는 북한, 폴란드 등 소련에 의해 강요된 혁명 등이다. 이러한 유형들이 구체적인 역사전개의 소산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그 구체적인 역사전개에는 각각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 특수성을 편의상 역사적 사회적 文化的 조건으로 본다면 個別性으로 놓이는 것은 民族일 것이다. 그 위에 보편성으로서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놓인다고 가정해 본다면 개별성 보편성의 대립 속에 매개항으로서의 특수성을 설정할 수 있다.(3) 위에서 보인 세 유형에서 쉽게 사람들은 [民族共產主義]라는 개념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적 공지의 감정을 우리 大러시아의 계급의식으로(무장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있어 無緣한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4)라고 레닌은 [大러시아인의 민족적 공지에 대하여]에서 주장하고 있거니와 요컨대 소련형이든 中共형이든 北韓형이든 個別性으로서의 民族性을 떠나서는 사

태가 자세히 이해될 수 없다. 이런 전망에서 민족개념이 그 각자의 傳統思想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 北韓에는 金日成 唯一思想으로서의 主体思想이 있을 뿐이다. 이는 형식상 레닌思想 毛沢東思想등과 같은 범주에 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같은 범주라 한 것이 原則的으로는 맑스·레닌사상에 의거하면서 각 民族의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맞게 변형시킨 独自の 사상의 뜻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내놓은 결과에 의하면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맑스·레닌주의의 역사관인 경제(歷史)결정론을 부정하여 金日成思想과 意識이 역사발전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5) 즉 人間意志決定論인 것이다. 이것에 대한 是非 가명 이런 것이 맑스·레닌주의와 몇 각도 경사져 있다든가 범주가 서로 다른 것이라든가 [완전히 獨創的 사상]이라든가에 대해서는 論議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만 그의 主体思想에서 民族問題가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를 검토하고 또한 가능만 하면 그러한 견해가 전통사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엿보자 할에 목적이 있다. 만일 그의 主体思想이 맑스·레닌主義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그것과 전통사상과의 관련성이 증대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연구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客觀性을 흐리게 할 우려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Ⅱ. 北韓의 民族概念

주지하는바 北韓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概念은 [역사학사전] [정치사전] [철학사전] 등에서 규범적 資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중 民族問題를 다룬 것은 [정치사전] (1973) [철학사전] (1970) 등인바 전자가 후자보다 새로운 해석이 시도된 듯하다.

[정치사전]에 취급된 민족문제에 관한 것은 15항목이며 이를 검토해보면 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물론 [철학사전]에도 민족문제가 7항목으로 좁혀져 있으나 그 선택된 항목의 개념이나 설명은 [정치사전]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가 다분히 정치적 개념이므로 [정치사전] 쪽의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는 일이 첨경일 것이다.

(1) 民族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文化,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6)이라고 그들은 民族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定義는 과연 사전적인 것으로서 형식논리학에 알맞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中立的인 개념으로서 靜的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이 중립적 개념은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소위 교시에 의해 力動的인 개념으로 전락된다. 즉 <<언어는 민족을 特徵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핏줄이 같고 한 영토 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

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4권 p.1)라는 교시에 의해 민족개념을 규정하는 언어·지역·경제생활·혈통과 문화·심리등의 조건 중 言語조건이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처럼 민족을 特徵짓는 표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를 언어의 공통성에 둔 것은 民族問題가 생물학적 표징에 의해 구분되는 人種과 다르며 또한 한 국가 안에 거주하면서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는 공민(혹은 국민)과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하다. 즉 언어와 文字의 공통성에 [의해서만] 경제생활과 文化와 심리의 공통성이 이룩되고 또한 그것이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인 듯하다.

생물학적 표징이나 국민 혹은 공민으로서의 사회정치생활의 조건보다 언어조건을 우위에 둔 것은 언어조건이 스탈린의 견해대로 上部構造도 아니지만 下部構造도 아닌 언어자체의 특성에서 연유되는 것이다.(7) 스탈린의 이런 견해가 정책적인 측면을 내포했듯이 북한의 언어공통성의 주장도 정책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해방>문제에 이 점이 관련된다. 金日成은 언어문제에 두 번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끝자는 새로운 언어의 창조는 남북이질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상유지를 지시하고 있는 점이다.(8)

그들이 民族問題를 검토하는 마당에서 이처럼 맨 처음에 <언어의 공통성> (언어문제)를 내세웠음을 보았거니와 뒤에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마지막 단계에도 <民族語>라는 항목을 두어 언어

문제로 되돌아가고 있음은 간파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항목에서 또하나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민족은 민족적 傳統에 기초하여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자주성과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방점:인용자) 이 문장의 뒷부분은 그 앞부분의 방점친 部分의 강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막연한 규정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다. 가령 1970년에 간행된 [철학사전]에는 방점친 부분과 같은 강조사항이 없다. 주체사상의 철저화가 이에 더욱 반영된 증좌일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民族에 대한 관념은 맑스 레닌주의의 민족관의 原則을 밑바탕에 깔고 있음은 사실이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에서 보듯 평등권과 자결권이 제시되는바 이는 레닌이 규정한 그대로이다. 자본주의시대가 계급적 착취와 함께 민족적 抑圧이 지배하는 시대라면 그 실제적 원인은 경제적 낙후성에 있다. 따라서 자립적 민족경제와 정치적 자립성을 위해 鬪爭해야 하며 그 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原則論이다.

요컨대 언어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민족어의 발전에 관한 김일성 동지의 사상] (1970, 사회과학출판사)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民族改良主義>

이는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맞서 싸울 대신에 그들에게 아부 굴종하면서 농들의 식민지 통치의 테두리 안에서 민족의 처지를 부분적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듯이 떠밀리는 반동적 사상](9)으로 규정되어 있다.

[철학사전]에 의하면 민족개량주의는 두가지로 된다. 하나는 지난날 일제시대의 문제, 이는 조선인의 빈궁과 고통의 원인을 일제의 침략정책에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열악한 민족성>에 있다고 주장하여 민족성을 개량해야 한다든가 自治運動을 주장함으로써 일제침략을 합리화하고 민족해방 鬪爭을 방해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한에서의 <미제와 그 추구들>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족개량주의를 들었다.(10) [정치사전]에는 이 후자가 削除되고 표현도 간략화되어 있다.

(3) <民族利己主義>

[철학사전]에는 항목이 없고 [정치사전]에만 새로 挿入된 것이다. [자기민족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그것을 위하여 다른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부르췌아사상]이라 간략히 규정되거니와 이 항목은 실상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듯하다.

«혁명하는 인민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민족적 이기주의이며 수정주의입니다.

우리는 세계혁명을 위하여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를 때려부
시기 위하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

민족이기주의는 표면상 수정주의의 공격 등으로 강조된 듯하나
정치적으로는 소련 중공 등 강대국을 비판한 것으로 보아질 수
있다. <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라든가 참다운 < 사회주의적 愛國
主義와 >도 배치되는 민족이기주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주장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4) < 民族問題 >

이 항목은 그 제목이 표시하듯 북한의 민족에 대한 思惟를
전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자세히 살펴줄 필요가 있다. 우선 그
개념적 정의는 이러하다.

[민족적 독립을 爭取하여 완전한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고 자립
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
인 개화를 이룩함으로써 온갖 민족적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는 문
제]로 규정된 용어는 매우 特徵的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民族이라든가 民族性 民族自決權 등의 개념이어야 할텐데
[民族問題]라는 包括的 용어가 특수한 개념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예인 것이다. 얼마나 이 항목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가를 이로써
알 수 있다. 특히 이 항목속엔 김일성의 소위 교시가 4 개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4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주의 시대는 계급적 착취와 함께 민족적 抑圧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 따라서 민족적 불평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점

②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권리가 있다는 것. <자기 권리를 자기손에 틀어쥐고> 행사해야만 독립과 자유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

③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鬭爭없이 민족적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것

④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없이 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치적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것

(5) <민족문화유산>

[한 민족이 오랜 역사에 걸쳐 이룩하고 후대들에게 남겨놓은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의 총체]

두개의 교시에 의거 그 역점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① 사회주의 민족문화건설이 그 목표이다.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은 선행문화와 質的으로 구별되는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文化를 건설해야 하는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행文化를 계승한 기초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文化건설은 국경이 있고 민

족이 있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조건에서 민족단위로 진행하여 민족적인 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2) 물론 오늘날의 사회주의적 현실에 맞게 과거의 유산은 비판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곧 노동제급의 계급적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6) < 민족분할정책 >

이는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통치를 유지강화하며 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鬭爭을 말살하기 위하여 민족호상(상호-인용자)간 또는 민족내부들 이간시켜 그의 통일단결을 破壞하려는 침략정책]으로 규정되며 그 본질은 < 분할하여 통치하라 > 라는 말속에 있으며 그 實例로는 지난날 영국의 인도통치와 오늘날의 미제국주를 들고 있다.

(7) < 민족베타주의 >

이는 [자기민족의 이해관계를 모든 다른 민족의 이해관계에 대립시키며 자기민족의 민족적 우월감을 교취하며 타민족에 대한 반목과 증오를 설교하는 반동적인 부르조아 민족주의]로 규정된다. 이 항목은 主体思想과의 관련성에 있어 음미될 수 있음직하다. 물론 이 용어자체는 부르조아 民族主義에 속하는 것으로 그들이 증오 내지 매도하고는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主体思想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위 김일성 교시는 <<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베타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적대되며 대중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합니다 >>로 되어 있다.

부르조아 민족주의가 부르조아지들의 계급적 이익에만 봉사하는 것이면서도 민족적 이익인 듯이 위장하는 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한 민족베타주의도 결국은 부르조아 계급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계급(민족)을 배척하는 사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전자가 노동계급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에 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사회주의체제 속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없고 다만 對外的인 국제관계에서의 鬭爭目標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만일 민족베타주의가 자기민족의 <민족적 우월감>을 고취하는 것이 라면 이는 수채사상의 기본항이어야 할 것이다.

(8) <민족자결권>

이는 [모든 민족이 자기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며 자기민족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자수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권리]로 규정된다. 노동당의 기본적인 민족문제가 바로 이 점이라 주장되고 있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

정치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는 경제적 자립이다. 이를 <기본담

보>라 적고 있거니와 경제적 낙후성은 민족간의 불평등의 실제적 기초로 보고 있다.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독립의 관계는 이 항목에서 가장 날카롭게 의식되고 있거니와 그것은 다음 두 단계로 설명된다. 첫째 정치적 독립을 爭取하기 위해 鬪爭하는 단계 둘째는 이미 爭取한 정치적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나가는 단계 이를 위한 방법이 곧 主体思想이라 한다. 주체사상은 곧 민족자결권을 위한 이론적 기초이다. 정치적·자주경제적 자립, 군사적 자위를 기반으로 하는 主体사상에 의해서만 외세의존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고립주의 민족이기주의를 뿌리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9) <민족자본가>

이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외래독점자본에 예속되지 않았으며 그들과 모순관계에 있는 토착자본가]로 규정된다. 이에 대립되는 것이 외래독점자본가와 예속자본가이다. 민족자본가는 우선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과의 鬪爭을 함으로써 민주주의혁명에 이해관계를 갖는다. 민족자본가의 反帝的 측면이 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족자본가는 그들이 자본가인 특성으로 하여 착취제급에 봉사한다. 이로 인해 노동제급 및 민족을 배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된다. 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그들은 혁명수행상 단계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노동당은 민족자본가와 타협하여 공동전선을 펴

다가 노동당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는 당에 의해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고 다만 남조선에만 이것이 미해결로 놓여 있다는 것이다. 미제국주의 독점자본과 매관자본가의 압력속에서 남조선의 일부 <애국적 민족자본가>들은 <남조선 혁명의 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레닌의 낡은 命題를 본다.

(10) <민족적 자부심>

이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제승해야 할 민족의 훌륭한 모든 것에 대한 자랑의 감정이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고 민족문제를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신심]로 규정되며 북한의 민족문제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보인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개념이 노동계급의 이익과 목적달성을 위한 것인 이상 민족적 자부심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노동계급의 민족적 자부심이다. 따라서 제급의식과 민족적 자랑의 감정을 결합시킨 것으로 된다. 물론 감정인 한에서 그것은 과학적 개념일 수 없다. 그들은 이 민족적 자부심이 민족배타주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오히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감정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그의 교시에서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더욱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른바 민족적 자부

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① 黨과 ② 김일성
 숭배사상이다. ②를 다시 세분하면 김일성을 받드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랑, 그가 만들고 지도하는 사회주의 제도에 산다는 우월
 감, 그가 이룩한 혁명전통의 계승자된 영예와 자부심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변형시켜 놓
 았다는 점이다. 민족적 자부심이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체제의
 우월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인 셈이다. 따라
 서 민족적 자부심을 강화하는 일은 곧 주체사상을 강화시키는 것
 과 비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에
 다 보편타당성을 부여하려면 그것이 단순한 個人崇拜思想이 아니라는
 신념을 주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 민족적
 자부심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족적 자부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
 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11) <민족적 자주의식>

이는 [그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민족자체라는 자각과 민
 족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는 그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
 어나가야 한다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이는 민족허무주의와 대립
 되는 것으로 주체사상의 발현이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는
 <사회주의 애국주의>로도 발현되는 것이라 한다. 김일성의 교시
 에 의하면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로 규정된다.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의 결합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인 셈인데 문제는 그 결합과정이 어떻게 가능한가, 고쳐말해 거기에 제재되는 변증법에 있다. 이 변증법의 설명과정이 어떠한가가 늘 주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오기라든가 억지주장이 아니라 매개개념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 항목해설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의 우수한 것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떠난 민족자주의식이란 추상적인 것]이라 한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韓民族의 우수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불음에 대한 해답이 가장 난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思想史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음은 이로 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韓民族의 우수성이 김일성이라는 혁명가를 낳았다는 것에만 있다는 주장으로서는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12) <민족주의>

이는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고 자기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일삼는 부르쥬아사상]으로 규정된다. 민족주의는 부르쥬아적 性格을 띤 것으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 및 비판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도식으로 되어 있다. 大國자본가계급의 민족주의와 被支配국가자본
가 계급의 민족주의를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대국배타주의적
민족주의요 후자는 식민지 예속국가의 민족주의라 불리는 것이다.
이중 후자는 전자와 鬭爭하여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
하는 한도에서는 그리고 노동계급이 아직도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
기 전까지는 연합전선을 펼수 있다. 즉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
이다. 그러나 후자는 끝내 부르조아적인 것이기에 어느 시기가
오면 부정되고 鬭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
가속에서도 이 민족주의 잔재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鬭爭
이 요청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이룩된 국가에
서는 [민족주의의 사회계급적 근원]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새삼
민족주의의 피해에 우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이 항
목의 해설에 기대면 그것은 (1) 민족이기주의 (2) 대국주의적
경향으로 된다. 이 둘과 鬭爭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국주의가
소련이나 中共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13) <민족허무주의>

이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기 민족이 이룩하여 놓은 민족적 전통을 비롯한 貴重하고 가치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말살하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이를 달리 노예적 굴종사상이라 하고 또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연결되며 세계주의(그들이 말하는 미제국주의)와 결합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그 <사회경제적 기초>가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이것이 완재로서 나타날 수 있어 근로자교양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지난날 우리민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민족허무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속에 민족적 자부심을 높일 수 없고 - - - >>라고 지적한다. 이 항목의 해설속에는 민족적 허무주의를 없애고 민족적 자부심을 갖기 위해 (1) 김일성의 항일혁명鬪爭의 혁명전통 (2) 그후의 혁명지도성에서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김일성이 곧 민족자체라는 論法인 것이다.

(14)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

이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외래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 앞잡이인 국내반동세력을 때려부시고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며 봉건적 착취 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혁명]으로 규정된다. 이 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이고 그 동맹자는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군인, 애국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이다. 혁명이 완수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즉 프로레타리아독제가 성립될 때는 그 동맹자는 이미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은 소위 < 남조선 민족해방 >에 관련되는 것이다.

(15) < 민족어 >

이는 [민족의 형성과 함께 이루어지고 발전하며 그와 운명을 같이 하며 민족 안에서 단일화되어 전체 민족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쓰이고 이해되는 언어]로 규정된다. 항목 [民族]에서 보았듯 김일성교시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언어에다 두고 있었다. 따라서 民族語는 民族을 특징짓는 < 가장 > 중요한 징표이다. 그것이 실상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의 < 힘있는 무기 >로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어는 민족문화창조의 필수적 수단이자 전통의 계승 발전의 중요수단이며 또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우고 <민족적 단결>을 이루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상 15 항목은 [정치사전]에 들어있는 것으로 [철학사전]에 실린 것보다는 9개의 항목수가 많고 또한 세분된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철학사전]의 다섯번째 항목으로는 [민족통일전선]이 실려있다. 이는 [정치사전]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치사전]엔 제 14번 항목으로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속에 일부 흡수되어 있다. 이 항목은 물론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해방>을 목표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 목표는 [철학사전]에 의하면 (1) 노동계급이 주축이 되어 농민등 동맹자를 합해 주력을 형성하고 (2)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여 상층통일전선으로 나아갈 것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에 있어서의 민족에 관한 규범적 이해는 의외로 간단하지 않다. 그들이 <민족문제>라는 용어를 철학적 단위로 설정해 놓고 있음을 보아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겠거니와 특히 그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사유적 단위의 核으로 삼고 있음에서 소위 主体思想과의 연결이 모색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민족적 자부심>의 주장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처럼 빌어온 추상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공소해짐을 면할 수 없음은 필연적 현상으로 된다. 그런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둔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主体思想도 한갓 억지이거나 터무니없는 오기에 전락될 위험이 있다. 그들의 민족에 대한 개념들이 思想史의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변증법적인 論理로서 창조에로 輕化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는 限 이 문제는 공허한 구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主体思想이 가능할 수 있는 두 방안을 다음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조선철학사상사]이며 민족문화와 창조에 대한 예술론이 그 다른 하나이다.

Ⅲ. 民族的 傳統의 問題

(1) 「조선철학사상사」에 대하여

1972년 4월 김일성의 탄생 60주년 기념으로 전국사회과학자 대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정립이 사상적으로 선명히 표명된다.(양형섭 발표)

한편 김일성은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다음 두가지의 소위 교시는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적으로 보인다.

(A) <<主体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교조주의적 태도와 큰 나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사상과 의존심, 민족허무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는 것과 함께 민족배타주의나 쇄국주의, 관문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자기의 것을 내세운다고 하여 낡은 것을 무비판적으로 되살리려는 복고주의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B) <<백과사전을 편찬하는데서 당성, 계급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백과사전에 넣을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넣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동식물과 우주전체의 운동을 비롯한 자연현상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견지에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예술을 비롯한 사회현상은 역사적 유물론과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의

전지에서 옳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넣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A)와 (B)는 소위 북한의 사회과학의 임부에 대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요점으로 파악된다. 이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가는 곳은 맑스·레닌주의의 입장 및 변증법적 유물론의 해석에 관한 그들의 이해와 태도에 관해서이다.

만일 김일성의 主体思想이 극히 독창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철학상의 存在論이나 인식론에서 어떤 심화과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레닌思想이나 毛沢東思想이 이룩한 사상사적 독자성이 그러하듯이, 물론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상식적 차원의 그때 그때의 현실적인 즉흥적 정책의 언어일 뿐임은 알려진 바와 같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체계적 사상으로 되기 위하여는 이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씌여진 「조선철학사상사연구」는 이런 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집필요령은 대체로 앞에 보인 김일성교시 (A)와 (B)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A)에서는 교조주의, 민족허무 복고주의를 극복해야 주체적 철학사가 연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은 자칫하면 교조주의를 낳아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조선철학사연구에 기계적으로 틀어 맞추게 된다.」¹¹⁾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원칙과 그들이 말하는 조선철학사의 원리는 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볼 여지가 생긴다. 다른 한편 (B)에서는 당성·계급성의 원칙 즉 맑스·레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세히는 자연현상에는 변증법적 유물론,

정치·경제·文化등 사회현상은 역사적 유물론과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견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A)와 (B)는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바 이 둘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 그것을 주체사상 속에서는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주체사상은 변증법적 기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한국적인 특성 즉 민족적 특성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이 사상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한 사상의 힘을 발휘하는 뿌리가 있겠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구상한 철학사상사의 골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철학사상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朱子學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이다. 소위 <理一元論>과 <氣一元論>의 대립적 명제의 설정이다. 조선왕조 이전까지의 對立的 命題는 三國時代 이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룩된 佛敎라는 교도의 관념론과 이에 대립되는 것을 유교사상으로 설정한다. 전자는 反動思想이며 후자는 역사적 제약성으로서의 단계적인 진보사상이라 규정된다. 이 對立에서 유교적 사상이 비판적으로 표현된다. 이 갈등의 이론은 조선조에 와서는 朱子學속의 理氣論爭에 집중된다. 理一元論的 유교관념론과 氣一元論的 唯物論 즉 관념론과 唯物論의 對立이다. 어찌서 氣一元論은 唯物論으로서 진보적인 사상인가를 검토하는 일이 먼저 요청된다.

理氣論爭이 한국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를 떠나서는 「민족유산」이나 민족적 특성을 논의하기 어렵다. 주지하는 바 理氣說은 朱子學이 완성한 天地人의 원리이다. 이는 存在論과 인식론으로 나뉜다. 우주의 시초나 자연질서에 대한 근원을 밝히는 太極 五行등은 모두 존재론에 속한다. 퇴계에 의해 주장된 理一元論은 물론 朱子學說의 되풀이겠지만, 세계의 始源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면 오직 <理>뿐이라는 것이다. 사물이 있기 전에 먼저 理가 있는 것이라면 君臣이 있기 전에 君臣의 理가 먼저 있는 것이며 父子가 있기 전에 父子의 理가 있는 셈이다. 이처럼 事物에 앞서 존재하는 理는 사물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까닭으로서의 당연한 법칙 (所當然)이다. 사물에 앞서 존재하며 사물을 그러한 사물로 되게 하는 그 어떤 超自然的 原理가 理이며 따라서 이는 하나의 객관관념론이다. 氣는 理의 다음에 와서 사물을 이룩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氣는 절대적인 理에서 파생해 나온 것으로 理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 수단으로 볼 뿐이다. 이러한 관념론에 의하면 사람의 性에도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뉘지며 전자는 선천적으로 天理에서 받은 것으로 사람 모두가 같으나 후자는 육체적 기질에서 생기는 것으로 등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성이 곧 身分制를 합리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로 보면 理一元論은 理를 천지 만물의 초자연적인 원리로 봄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알맞게 창출된 것이라 할 것이다.

퇴계의 이런 사상이 대관료 및 대지주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한 것이라면 중소토지소유자계층에 대응되는 이론으로는 율곡의 理氣二元論을 들 수 있다. 그는 理의 절대성, 一次性에 반대하여 理와 氣를 함께 同等한 위치에서 세계의 궁극적 시원으로 보았다. 太極과 陰陽이 선후가 없고 동등한 것이기에, 人性의 문제에 있어서도 「四端이 理에서 발생, 氣가 거기에 따르고 七情은 氣에서 발생하여 理가 그것을 탄다」(퇴계)는 주장에 맞서 율곡은 「四端이나 七情이나 그것은 모두 氣에서 발생하고 理가 그것을 탄는 것」이라 한다. 즉 四端도 초자연적 理일 수 없고 知覺이나 그것의 축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보아 認識論의 단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율곡의 人性論 역시 朱子나 퇴계의 주장과는 <氣質之性>의 입장에 선다는 점에서는 같다. 즉 身分制의 철저한 인식이 놓여있는 것이다.

그들의 철학사상기술에서 최대의 강음부를 놓고 있는 곳은 저 金時習, 徐敬德, 崔漢綺에로 이어지는 氣一元論이다. 이는 하층양반의 이데올로기에 대응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우선 그들은 화담의 氣一元論을 <唯物論的 哲學>이라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그 이유는 氣가 곧 物質을 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의 궁극적인 始源이 <理>도 아니요, 불교에서 말하는 先驗的인 <心>도 아니고 오직 하나뿐인 <氣>이며, 정신이란 것도 이 氣에서 생겨난 것으로 본다. 그는 氣의 모양과 생김새가 「먼지」와 같다고 형용하는데, 이는 그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粒子, 要素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초도 종말도 없고 천지

간에 가득차 있는 氣가 어떤 원리에 의해 흩어지기도 모이기도 하는 것일까. 이 물음의 답변이 변증법에 관련된다. 즉, 氣로써 이루어져 있는 우주자연 모든 사물은 부단히 운동하고 있으며 그것은 氣自體의 固有한 內在的 要因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란 것이다. 「하나의 氣라고 하면 거기에는 둘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으며 벌써 太一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곧 둘이 들어있는 법」(「원리기」)이라고 화담은 주장한다. 이처럼 氣가 그 자체內에 본래부터 <서로 같지 않은 성질의 두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들간에 生極작용(갈등, 투쟁)이 발생, 부단한 운동이 계속된다. 소위 변증법적 生成의 논법이 이에 가능해진다. 物質자체의 內在的 원리(對立性)에 의해 저절로 그렇게 운동한다는 것은 사물밖의 어떤 원리를 인정하는 관념론과는 상용되지 않는다.

화담의 이러한 氣一元論은 存在論에 있어서는 초자연적 원리인 불교의 <心>이나 朱子學的인 理一元論에 상당한 충격을 던졌을 것이나, 그것이 認識論으로 심화되지 못한 듯하다. 화담의 이 사상도 따지고 보면 朱子學의 선구자들에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北宋의 周廉溪의 이른바 「無極而太極」에서 陰陽·五行·萬物의 流出論이 설명되지만 그것이 관념적(理)인지 質量的(氣)인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張橫渠에 오면 그것을 <氣>라고 단언하게 된다.¹²⁾ 中國철학사, 소위 太虛라 함은 이 氣를 뜻한다. 그러나 氣로써 당시의 身分制나 관료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적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상에서 북한의 철학사상사의 핵심을 대강 살펴보았다. 理氣論에서 理一元論과 氣一元論의 對立을 설정하여, 후자의 성장과 심화를 주축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唯物弁証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상사에서 理一元論(朱子學)이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던 19세기말까지로 본다면 이 기간동안은 두 이론은 그 對立性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朱子學이 그 현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중지했을 경우, 사태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사상사의 입장에서 물을 수 있다.

(2) 전통사상과 변증법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① 자주적 입장과 ② 창조적 입장으로 말해지고 있다. ①은 事大主義를 극복하는 강력한 사상이론적 무기로써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힘을 믿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 책임아래 해결하는 태도를 말하며 후자는 「혁명과 건설의 일반적 合法則性과 민족의 특수성을 바르게 결합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¹³⁾

이로 보면 전자는 현실적인 정치의 차원이지만 후자는 文化創造와 관련되는 것으로 민족적 전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놓이는 자리라 할 것이다. 물론 主体思想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혁명실천의 구체적 조건에 알맞게 적용, 발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맑스·레닌주의란 아무리 그것이 보편성을 띤 것이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서는 外來的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만능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것이 文化創造와 결부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역사적 조건과 결부되어야 한다. 그 조건이 이른바 <민족적 특성>이다. 문학예술에 적용된 주체사상을 살펴보면 민족적 특성의 문제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가령 김일성은 <民族的 特性> <民族的 傳統> <民族的 形式> <고상한 민족적 감정> 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文化創造에 깊이 개입된 다음과 같은 교시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과거 문화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 » 이라 하고 <民族的 形式>을 «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형식 » 이라 한다.⁽¹⁴⁾ 사회주의에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는다는 것은 변증법의 개입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것은 唯物辨証法 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 정립과 그 체계화의 심화가 없다면 金日成의 주체사상은 정작 중요한 대목에 와서는 幼兒的인 단계에 멈추고 만 것이다.

우리는 主体思想과 결부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상사적 과제로 그들의 「조선철학사상사연구」를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唯物辨証法의 사상이나 그 變型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창의적 사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기껏 徐 화담의 氣一元論과 그것의

설명인 한 사물내의 대립적 요인으로 인한 운동변화개념 뿐이었다. 연구가 이 수준에서 멈추고 그것이나마 主体思想과 결부시킬 수 없었음은 氣一元論 자체도 독창적이기보다 유학의 한 갈래이기에 도리없는 일이다.

毛沢東思想의 경우 그의 유명한 矛盾論은 중국의 사상사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그러한 성과는 변증법적 思维의 深化에서 달성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양이다. 원래 변증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이후의 형식논리학 계보와는 별개의 사고체제이다. 同一律(排中律 矛盾律)이 서구적 논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변증법의 논리에 기반을 둔 탐시즘은 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毛沢東思想은 물론 辯証法的 唯物論의 발전에 독자적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중의 일부는 중국적인 사상의 전통에 힘입고 있다. 첫째는 中國語 자체가 존재와 生成을 對立的으로 인식하지 않음에서 사물의 인식과정에서 벌써 변증법적 사유로 되어 있다는 점¹⁶⁾, 둘째는 朱子學的 사상구조와의 관련을 들고 있다. 한 연구가의 주장에 의하면 毛沢東의 저술에 인용된 책들은 유교(朱子學) 쪽이 22개소이며 道家 12, 민요, 전설, 文學이 13, 기타 7이며 맑스·엔겔스는 단지 4이고, 레닌이 18, 스탈린이 24로 되어 있다.¹⁶⁾ (p.16) 레닌이나 스탈린의 저서들의 인용이 철학적 사유쪽보다 정책적인 것으로 본다면 毛沢東思想은 맑스·엔겔스의 정통적 노선과의 연관성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의 전통사상과의 관련성이

많으며, 이는 毛思想의 독창성을 새삼 말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文化나 사상의 독창성은 그 나라의 민족적 특성과 관련없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毛沢東의 矛盾論은 朱子學的의 形而上學的<理>를 배격하고 <氣>一元論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설명방법은 다분히 朱子學的의 논리와 상통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⁷⁾

모든 사물의 발전과정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이를 모순의 보편성·절대성이라 한다. 이 모순의 보편성은 모순의 특수성속에 잠겨져 있어, 이를 연구하여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 보편과 특수, 절대와 상대의 논리는 변증법적 사유의 기본항이다. 이 역시 朱子의 格物窮理論과 비슷한 설명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할 때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한국사상사와는 거의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論理以前의 心情的 상태로 이해되며, 따라서 독창적 사상으로서의 자리를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主体思想과 민족적 형식 혹은 특성과의 관련성이 주장되는 최후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다.

(3) 父 概念의 意味

앞에서 자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민족문제에서 그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민족적 자부심>에 관한 항목이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는 論理가 아니라 일종의 <感情>이며 <信心>인

것이다. 그 感情이나 信心에서 민족적 자부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부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랑, 그이께서 세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서 산다는 우월감, 그이께서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의 계승자된 영예, 그이의 영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다. 18)

이로 보면 민족적 자부심은 金日成과 더불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며, 金日成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한결같이 민족적 자부심과는 무관한 것이다. 어째서 김일성만이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이자 근원일 수 있는가를 따질 때 부각되는 것이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이다. 이 철저한 個人崇拜사상은 물론 맑스·레닌주의와는 상관되지 않는 소위 부르조아적 봉건적 사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個人崇拜思想이 세계 유례없이 독특하고도 철저한 양상을 띤 것이 金日成의 主体思想이라면 그것은 다름아닌 민족적 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나의 假說을 조심스레 세워봄직하다. 물론 그 민족적 특성이란 구체적인 역사 전개에서 이룩된 것이기에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家父長制的인 東洋的 질서관과의 관련성에 관해서이다. 이

문제는 일찌기 헤겔이 그의 「역사철학서론」에서 중국을 <持續의 나라>이라 지적한 것에 관련된다. 헤겔에 의하면 중국 및 몽고 등 동양의 나라는 강력한 家父長制를 이루어 한사람의 父가 최상위에 군림하는데 이 원리가 국가조직의 원리에까지 적용되며 個人은 도덕적으로는 無我和 같다는 것이다.¹⁹⁾ p.221. 이를 그는 散文的인 나라 또는 持續의 나라라고 불렀다. 父로서의 절대권을 행사하는 家父長 또는 國王이 위에 놓여 있고 백성(個人)은 모두 子의 위치에 놓여진다. 父子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적 安定感으로서의 지속성은 가능하지만 父는 언제나 父이고 子는 또한 늘 子일뿐 이에 대한 변동은 없다. 이를 空間的 지속이라 부른다. 이 空間内部에서는 主体(個人)는 자기의 권리(자각)에 도달될 수 없고 언제나 父에 대한 子로서만 존재될 뿐이다. 幼兒期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 無歷史性이라 함은 이 때문이다. 對立을 자기 内部에 갖지 않았기에 변증법적 生成의 문제는 개입될 틈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기속의 對立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對立이 국가질서의 外部에서 발생하여 崩壞를 초래한다.

이 家父長制가 國家制度와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것, 그 철학적 기반이 유교사상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소위 그 규범은 三綱五倫으로 집약된다. 이중 父子綱과 君臣綱이 기반이며 더 좁히면 父子綱이 으뜸으로 놓이게 된다. 對內的으로는 子는 언제나 父에 대한 子로서만 존재하며 그 子가 成人意識을 획득하는 순간은

對外的인 對立에 임할 때만일 것이다. 이러한 家父長制와 국가 조 직의 사상은 유교의 교리와 함께 동양적 질서감각으로서 우리나라 에도 오래토록 깊은 뿌리를 남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 은 넓은 뜻의 민족적 유산인 셈이다. 理一元論이든 氣一元論이든 이점에서는 같다.

둘째로, 한국사의 특수성을 이에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적 특성>이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이 문 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

주지하는 바, 서구제국주의의 충격에 대해 韓民族의 대응방식은 (1) 위정척사파 (2) 동학운동 (3) 독립자강파 등으로 三分될 수 있 다. 모두는 크게 보아 外部에 대한 저항과 内部에 대한 모순의 극복이라는 공동목표설정으로 귀일된다. 그러나 1910년을 전후해 서 國權喪失 이후엔 사정이 매우 달라진다. 意識의 變化에서 그 것은 兩面的이라 할 것이다. 가령 西歐化에 실패하여 국가가 식민 지 상태로 전락한 중요한 원인은 위정자들의 잘못이겠지만 더 깊 이 따진다면 위정자들이 기대고 있었던 朱子學的 세계관 자체의 결합에 귀착될 것이다. 이 朱子學的 질서관은 公概念을 위주로 한 것이며 그 위계질서는 天概念을 上位에 둔 것이고 이를 父意 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國家라든가 王은 父子관계처럼 天理라는 公概念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질서관, 세계관이 西歐 的 제국주의에 여지없이 패배하였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 서구적 제국주의는 비유컨대 意識의 문제에서는 私概念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父子관계중심의 한국적 의식구조와 부부중심의 서구적 의식구조의 차이와 갈등이 개화기엔 자유연애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요컨대 朱子學的 세계관은 배척, 과기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양반들의 부패는 시원히 증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갖게 된 것, 이 이율배반적 의식이 식민지 전기간을 통해 民族意識이란 이름으로 생생히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이 식민지 시대는 國家라는 公概念의 상실로 볼 것이며, 이는 天의 概念의 상실이기도 하며 人倫으로 연역하면 父意識의 喪失인 것이다. 그 父가 아무리 악독한 것을 한 존재라도 父는 父이며 子는 이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런데 그 父가 지금 不在한다. 이런 때 그 不在에 대한 급진적이며 病的 그리움이 발생한다. 헤겔은 이를 <낭만적 이론>이라 했거니와⁽²⁰⁾ 欠落部分을 메우려는 급진적인 사유에서 병적 美學이 발생했고 이를 「님」의 침묵으로 표상시켜 민족문학이라 한다.

이 兩面性을 가장 적절히 活用한 것이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적 자부심>인지도 모른다. 조선조에 있어서의 父意識은 天理이며 國家 역시 그러했다. 그것이 도덕적 기반으로 계속 작용될 수 있을 것은 식민지 상태의 병적 意識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對內的인 모든 문제는 對外的인 문제 즉 父意識의 회복 앞에서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父意識의 자리에 金日成思想이 놓일 수 있었던 근거가 있다. 그것은 個個人이 子의 상태에 멈추기를 강요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幼兒期에서 벗어나려는 어려운 시련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회피하여 안온한 幼兒期的 사고에로 성장정지 또는 계속 심리적 퇴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김일성개인숭배속에 잠긴 사고의 핵심 것이다. 이는 헤겔이 말하는 공간적 지속의 나라인 셈이다. 다른 한편 갈등은 對內的인 것속에 두었다. 이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초기단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 內部的 계급투쟁을 벌임으로써 父意識을 강화 충족시킨다. 그 父는 식민지시대에도 빨치산으로 있었던 父이며 해방된 북한에서 이제 전재하고 있다. 이 父의 비호아래 子는 內部的 반동적 요소와 투쟁한다. 여기서 子는 약간의 成人意識을 만족시킬 수 있다.

둘째 이 子의 內部투쟁은 조만간 그 한계점에 온다. 자체內의 소위 반동적 요소는 철저히 숙청되었기에 그 다음 과제가 없이는 子는 더 이상 자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父에 대한 子의 도전이 감행될 우려성이 발생한다. 子는 內部투쟁에서 약간의 成人意識을 얻었기에 그러하다. 이를 타개하는 방도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민족적 자부심>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체제우월성을 뜻하는 바, 남한을 의식할 때만 이 주장이 의미를 가진다. 韓民族 單位의 처지에서 볼 때는 남한과의 투쟁은 對內的인 것이며 主權國家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對外的이다. 물론 그들은 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민족적 자부심>의 內容規定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IV . 結 論

소위 北韓問題를 연구하는 경우 제3國人과는 달리 한국인은 어떤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것은 물을 것도 없이 韓民族으로서의 同質性에서 오는 意識이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해 그 同質性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목도하게 될 때 느껴지는 당혹감은 매우 큰 것이어서 연구자는 많은 경우 당황하게 되기 쉽다. 이는 동시에 同質性이 너무도 강해서 거의 낯설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이러니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아이러니를 가장 첨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아마도 民族問題를 검토할 때일 것이다.

흔히들 民族의 개념定義가 지난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側面에서는 거의 生得的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사실자체가 바로 이 문제의 중요성이자 심각성일 것이다.

다면적 변신을 할 수 있는 개념일수록 가장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生産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하나의 思想(主義)이라면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欠落部分을 메꾸려는 충동을 가지며 따라서 어떤 약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급진적인 성질을 갖게 마련이다. 사상(主義)의 운명이 정밀한 체계의 完璧性보다 어떤 作用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걸려 있다고 주장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展望에 설 때 북한의 <民族問題>에 관한 주장은 큰 음미사항이 아닐 수

없다. 아예 그들은 <民族問題>라는 용어를 철학 및 정치의 한 單位概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民族的 자부심>이란 개념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는 길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리라. 그 중의 하나로 무엇이 북쪽에서 가장 欠落된 部分인가를 測定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물론 이런 거창한 일에 이른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맴돈 것에 불과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반드서는 이 글의 方法論 자체의 비논리성에서 연유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글에서 검토해 본 것은 첫째 북한의 민족개념이 規範的 차원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를 주로 「정치사전」속의 15개 항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보려 하였다. 물론 이 민족문제에 관하여서도 그들은 레닌에 의해 규정된 노선을 표면상 일단 따르고 있다. 소위 <民族主義>란 그 앞에 <부르조아>라는 형용어가 놓이며, 부르조아계급의 이익을 民族全体的 이익이라고 기만하는 것이라 보며, 이를 철저히 배격하는 대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한다. 노동계급의 이익에 기초한 민족개념의 이데올로기를 근자에는 <사회주의 애국주의>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인 一般論의 원칙은 <民族的 特性>으로서의 個別性에 의해 교조주의로 비판당하는 처지에 놓여진다. 이 관계는 소위 主体思想과 맑스·엥겔스의 唯物辨証法과의 관계와 흡사하다. 역사에서의 個人的 역할은 사회조직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一般

論을 따르는 한도에서는 個人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소위 主体思想은 논리적 모순으로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普遍性和 個別性を 맺어주는 中間項으로서의 特殊性의 고려가 未分化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民族的 자부심>의 근거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다는도 思想的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먼저 그들이 써놓는 「한국 철학사상사」와 文芸思想에서 살펴보았다. 사상은 창조적 측면에 관련되기 때문에 民族的 바탕을 떠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소위 傳統思想을 <民族的 特性> <民族的 形式>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하나의 변증법적 과정의 설명으로까지는 발전되어 있지 않다. 맑스·엥겔에 대한 레닌의 사상, 毛沢東의 사상등이 독자적 사상으로서 변증법적 사상에 기여한 점과 主体思想은 결코 동열에 놓일 수 없는 것이다. 氣一元論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논리의 맥락은 탐구되어지지 않는다.

세번째로, 소위 <民族的 자부심>의 정체가 유교적 사유에서 비롯된 兩面的 성질에서 연유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자부심이란 일종의 感情이자 信心이어서 論理와는 거의 무관하다. 이 감정이나 信念은 金日成의 抗日鬪争과 그 후의 지도성에서만 발생 적용되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는 金日成이라는 존재에 있을 따름이다. 이는 東洋的 朝鮮朝的인 유교적 사유의 兩面的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소위 父概念의 설정이 그것이다. 日帝에 의해 살해당한 父概念(國家개념)은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을 낳았다. 이 엄청난 欠落部分을 메우려는 래디컬한 사상은 그 對置物을 찾는 강렬한 충동을 낳는 것이며,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를 어느 순간 하나의 고정모델로 설정하면 父는 항상 父로, 子는 항상 子로 上下관계가 성립된다. 심리적 지속은 이로써 획득되었다. 對內的 변화는 없다. 이것은 해방후 오늘날까지 북한 사람들의 심리구조일 것이다. 더구나 남한을 對外的인 존재로도 혹은 對內的인 存在로도 볼 수 있는 처지에 놓을 수 있기에 父概念으로서의 金日成思想은 계속 <민족적 자부심>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註 >

- 1) 레닌, 「제국주의와 민족·식민지문제」(川内唯彦訳, 大月書店) p.68.
- 2) 劉少奇, 「國際主義와 民族主義」(淺川諫次訳, 大月書店) p.16.
- 3) 個別性, 普遍性 그리고 매개항으로서의 특수성의 변증법적 관계를 떠나서는 깊은 해명이 전개되기 어려울 듯하다. 이 용어들의 근거는 G.Lukács, Probleme der Ästhetik (Luchterhand, 1969) p.633 참조
- 4) 레닌, 앞책 p.8.
- 5) 金甲喆, "北韓의 主体思想 本質解剖" (「아시아公論」 1978.6. p.139) 「辨証法앞에는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은 없다.」(「資本論」 서울出版社版 제1권 해설 p.29) 라는 맑스주의 견해와 얼마나 다른가를 이로써 알 수 있다.
- 6)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 p.422
- 7) 스탈린,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 문제" (「프라우다」, 1950.6) 스탈린의 이 論文과 관련하여 언어上部構造說의 포기는 東歐圈의 文学芸術 非上部構造說에 까지 파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고전적 전통을 지키려는 것이 루카치의 「上部構造로서의 文学」(1952)인 것이다.
- 8) 拙稿, "北韓의 評論" (「統一政策」 1978, 여름호) 참조
- 9) 「정치사전」(앞책) p.424 이하 각 항목의 개념정의의 引用은

(C.G.H. 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Richard R. Smith, 1931) p.302) 웨이퍼는
10 항목의 정의를 내려놓고도 例外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Boyd C.Shafer, Nationalism-Myth and Reality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1955) pp.7-8.)

모두 이 사전에 의거함.

- 10) 「철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0) p.256
- 11) 「조선철학사상사연구-고대·근세」(북한문화연구자료(4)) p.7
- 12) 狩野直喜, 「中国哲学史」(岩波書店, 1953) p.388 ff
- 13) 金甲喆 앞글 참조
- 14)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문예사상」(사회과학출판사, 1971) p.150
- 15) Chang Tung-Sun, "A Chinese Philosopher's Theory of Knowledge", The Yenching Journal of Social Studies, I, No.2, January 1939, pp.164-181.
- 16) Vsevolod Holubnychy, "Mao Tse-Tung's Materialistic Dialectics", The China Quarterly, No.19, July-September, 1964, p.16
- 17) 友枝龍太郎, "宋哲学과 現代中国思想" (「中央公論」 1973.4) 참조
- 18) 「정치사전」(앞책 p.429) 「철학사전」(앞책 p.259)
- 19) 헤겔, 「역사철학」(思想文庫, 金滄編역) p.221
- 20) 「현실과 절대자에의 갈망을 품으면서도 그러나 비현실적이며 공허하다는 상태(실사 내면적 순수성을 지녔더라도) 속에서 병적인 그리움과 美的 熱狂이 발생한다」(Hegel, "Ästhetik I/II (Reclam) p.122)
- 21) 헤이즈는 솔직히 민족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적고 있으며